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Study on Strategic Plan for Ensur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s Industry

임영순*, 맹해양**, 배기형**

세종대학교 무용학과*, 세종대학교 경제통상학과**

Young-Soon Lim(calany@hanmail.net)*, Hai-Yang Meng(menghaiyang@naver.com)**
Ki-Hyung Bae(baekh@sejong.ac.kr)**

요약

전통공연예술은 한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독특한 전통공연예술 장르를 대중화, 산업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통예술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총체적인 집합체로 이러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미래의 문화에 부합하도록 활성화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국가브랜드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K-pop 및 드라마 등 우리 대중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진출성공사례에 가려져 있지만 우리 전통공연예술분야는 꾸준한 역량 확대 및 세계의 주목을 받는 노력과 성과가 있어 왔다. 이제는 전통공연예술 분야에서 국내 및 세계에서 보다 대중적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공연예술 장르의 대중화, 산업화의 필요와 우리만의 독특한 전통공연예술 콘텐츠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및 진흥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전통공연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현황을 토대로 우리나라 전통공연예술 콘텐츠의 해외 시장 저변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전통공연예술 | 문화경쟁력 | 국가브랜드 | 전통문화 | 전략 |

Abstract

Traditional Performing Arts is a key el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that represents the identity of a country. Preserving traditional performing arts such as traditional culture overall aggregate such as literature, art, music, dance, theater and enable it to meet future national culture is to secure a competitive brand. Meanwhile, it shrouded in advance global success of K-pop and TV content, such as our popular culture, but our traditional performing arts sector, there has been a steady effort to receive the attention of the world and expanding capacity and performance. Now, this point will be a new policy approach needed to expand more popular in both domestic and world demand i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In this study, we propose a strategic plan to raise the popular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our own needs and unique traditional performing arts opportunities for successful overseas expansion and promotion of the content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s. With the help of information technology.

■ keyword : | Traditional Performing Arts | Culture Competitiveness | National Brand | Traditional Culture | Strategy |

1. 서론

21세기는 문화산업의 육성이 글로벌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문화산업을 국가의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요소로서 그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로 국가의 정체성과 독특한 색채가 담겨있는 전통공연예술 분야를 주목하고 있다. 전통예술은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향유되어온 생활문화이다. 특히 우리의 전통예술은 한민족의 생활, 풍습, 사상, 철학, 종교 등이 함축된 역사적이며 전통적인 결정체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민족적 정체성의 상실을 가져왔고, 해방이후 우리 생활 전반에 스며든 서구화로 인해 예술적 보편성까지 상실되면서 그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그러한 가운데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정부와 전통예술계의 활성화 노력을 바탕으로 제도약을 꾀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통예술교육, 인프라, 인적자원, 공연활동 등 지금의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양적인 성장일 뿐 질적인 성장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대중화와 산업화라는 전제하에 대중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IT환경의 발전 속에서 환경적 적응능력이 부재한 전통예술분야의 미래는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다. IT환경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젊은 세대들의 문화 및 서구의 창의적인 콘텐츠들이 앞서 발전하는 양상을 거듭한 반면, 전통예술에 대한 인식은 그에 준하는 성장을 거두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전통공연예술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통예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전통예술 산업계의 시장지향적이며 글로벌 추세를 따르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전통 문화정체성 확립과 대중화 및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결국 전통예술 산업계 전반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국가경쟁력의 기반 마련의 기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공연예술의 활성화 및 글

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창작, 유통, 소비 및 지원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세분화된 통계자료의 미비로 전통공연 예술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어 추후 연구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II. 전통공연예술의 개념적 범주

1. 전통공연예술의 개념정립의 필요성

현재 전통공연예술(traditional performing arts)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학계와 정책분야에 있어 차이가 있어 이로 인해 전통공연예술의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방향제시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연구의 시작에 앞서 전통공연예술의 개념적 범주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시하였다.

2. 전통공연예술의 개념적 범주

전통공연예술과 관련된 ‘전통공연예술(traditional performing arts)’이란 원칙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¹⁾에서는 전통공연예술의 개념은 따로 표기되고 있지 않으나 재단의 사업 중 ‘전통예술복원 및 재현 사업’에서는 「풍물, 성악, 무용, 연희, 무속, 의례, 기악, 궁중음악」을 전통공연예술의 범주로 보고 있다. 한편, 동 기관에서는 ‘2010 전통공연예술 통계조사’에서는 ‘전통공연예술’의 항목을 『가야금, 한국무용, 판소리, 대금·소금·단소, 풍물(농악), 피리, 민요, 거문고, 해금, 타악, 민속놀이, 가곡·가사·시조, 무궁, 창작연희, 아쟁, 가면극, 인형극, 기타연희, 기타』로 대체로 조사를 위하여 구분하였으며 앞서미에 ‘전통공연예술의 범주는 전통음악과 연희, 한국무용을 포함하도록 설정하였다[1]. 그러나 이는 아직까지 통일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자료의 각 항목들이 위의 범주와 다르게 조사되거나 혼합된 경우가 많았음²⁾과 명시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에서는 전통공연예술을 ‘무예, 공예기술, 음식’을 제외한 ‘음악, 무용, 연극, 놀이, 의식’을 본

범주로 이해하고 있다[2]. 또한 2014년 시도하였던 ‘전통국악진흥법안’에 의하면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전통국악”이란 우리 민족 전래의 음악과 춤으로서 궁중음악, 궁중무용, 민속음악, 민속무용 등과 전통적인 음악어법 및 춤사위를 바탕으로 창작된 음악과 춤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3]. 그러나 위의 정의는 개념상으로 보아서 혼돈되고 있으며 더불어 현황에 대한 불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무형문화재를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전통공연예술의 범주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통공연예술의 개념을 ‘판소리, 시조, 민요, 사물놀이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들려주는 행사 또는 민속놀이, 민속극(가면극·인형극) 등을 시연하는 행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2006년 자료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 비전 2010’에서는 [그림 1]와 같이 전통예술의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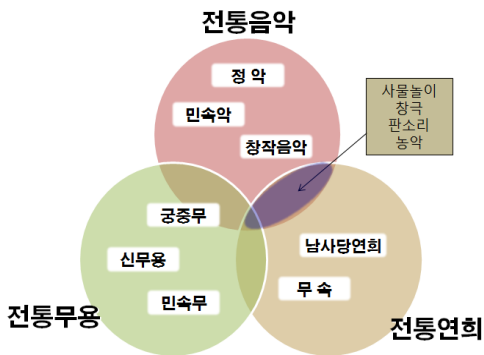


그림 1. 전통공연예술의 분류[4]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전통공연예술의 지역 간 균형발전 전략 연구’를 통해 전통공연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상 콘텐츠를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즉 전통공연예술의 개념을 전국의 전문, 비전문인에 의해 전송된 공연예술분야인 음악, 무용, 연극, 놀이, 의식의 원형 및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개발, 창작된 공연예술 분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전통공연예술의 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전통공연

예술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있어서 콘텐츠의 발굴 및 기획과 활용에 대한 지평이 넓어 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기존의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등 소속기관과 문화재청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기관과 해당 단체들에 대한 향후 전반적인 조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5].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법률화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에서는 전통공연예술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활동으로서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등 소리와 몸짓을 주된 요소로 하는 예술행위 및 그 성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본 연구 또한 이러한 광범위한 개념적 정의를 기본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III. 전통공연예술의 정책 및 산업 현황분석

1. 전통공연예술의 정책 현황 분석

1.1. 전통공연예술 정책의 변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전통공연예술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특히 서울올림픽(1988)과 대전엑스포(1993) 등 국제적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민족예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이는 과거 대중예술의 범주에도 들지 못한 채 침체되어 왔던 전통문화예술 시장이 새롭게 재조명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기를 토대로 전통문화예술은 제2의 민족음악의 부흥기를 맞게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전통예술공연계는 저변확대와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전통공연예술을 보존하고 활성화할 목적으로 각종 전통공연예술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작되었다.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점차 확대되어 1994년에 ‘국악의 해’가 지정되었고, 2000년에는 ‘새 예술정책’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새 예술정책에는 예술교육, 예술의 공공성, 예술인에 대한 처우개선, 예술전문인력 양성 등을 비롯한 4

가지 기본방향과 14대 역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정책에는 국악을 비롯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화예술교육, 예술산업, 지역문화예술 등 각 예술 분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새 예술정책에서 제시하는 전통공연예술분야의 예술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국악정책 부재이다. 여기에는 전통문화의 전승 및 보급에 관한 문제, 새로운 전통문화 창작여건 조성에 관한 문제, 국악문화의 내실화 문제 등이 내포되어 있다.

둘째, 국악 관련 전문 인력의 부족이다. 국악 관련 학교 졸업생을 수용할 사회기반이 부족하며, 국악전문 양성기관에서는 국악전문가를 양성하기보다 연주가양성을 위한 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음향, 조명 등 무대예술 분야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공연의 품질이 다른 장르의 공연분야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셋째, 국악저변 인구 층이 협소하다. 일반 대중은 전통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지만 생활문화로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생활문화로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이 미흡하며, 전통예술에 대해 민족음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식함으로써 접근용이성에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전통예술로서 음악문화의 회복측면에서의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성과 국악의 정통성 및 원형발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

넷째, 국악교육의 비정상화이다. 제7차 교육과정 개편 시 초·중등학교의 음악교과서 국악비중이 늘어났지만 국악교사의 전문지식이 부족함에 따라 정상적인 국악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6공화국 (1988-1993)	문화 민주주의	- 문화향수권과 참여권의 신장 - 국제문화교류의 양적 확대와 다변화 - 문화부분 재정확충 - 창작풍토 조성 및 환경과 제도 개선
문민정부 (1993-1998)	세계화, 민주화	- 우리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산업의 강조 - 민중민족예술계열 인사 제도권 참여 - 문화발전을 국가발전의 중심축으로 인식
국민의 정부 (1998-2003)	창의적 문화국가	- 문화의 세기 강조 - 지식기반사회의 문화역할 강조 -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으로 문화산업 육성
참여정부 (2004-2008)	참여, 자율, 분권	- 문화예술행정의 국민참여 확대 - 문화예술정책 자율체계 정립 - 권한이전 및 배분으로 분권과 균형
이명박 정부 (2008-2013)	품격 있는 대한민국	- 문화지원의 원칙변경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간의 '실용적 역할 분담' - 콘텐츠 수준 기반조성 및 저작권 보호강화
박근혜 정부 (2014-현재)	문화융성과 문화가 있는 삶	- 문화예술과 창조산업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 다양한 문화 창조 환경 구축 - 지방적 문화영역의 활성화 - 문화민주주의 발전 -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기반 구축

1.2. 전통공연예술산업 정책 현황 분석

전통공연예술분야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우리문화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을 위하여 전통예술의 원형을 회복하고 국민의 일상으로 돌려주며, 이를 바탕으로 전통공연예술을 국내외로 널리 전파하여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기본방향에는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를 포함한 '전통예술'을 대상으로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하되 기초학술연구 및 자료 제작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악 인프라 구축,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전통예술 경연대회 및 공연과 창작 활동 지원, 전통연희 활성화 사업, 전통예술 대중화 지원, 전통예술 세계화 사업 등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1. 문화예술 정책의 변화[6]

구분	이념	특징
제1,2공화국 (1948-1961)	반공주의	-문화행정 기반조성 -문화유산 보존
제3공화국 (1961-1972)	민족문화 창달	-공보행정이 중심 -문화예술행정의 본격화 -통제위주의 법체계
제4공화국 (1972-1981)	자주적 민족문화	-전통문화계승 -정신문화, 생활문화의 강조
제5공화국 (1981-1988)	문화 민주주의 문화입국	-문화 투자의 확대 -대규모 문화시설의 조성 -문화향수권의 강조 -지방문화의 육성

표 2. 전통예술정책 주요 내용[7]

구분	세부 사업	세부 내용
국악 인프라 구축	국악 인프라 조성사업 2000-2008	- 공연, 관람, 교육, 연주, 자료전시, 보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프라 구축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공연형태로 재현하는 사업 및 DVD 제작 등 디지털화 사업	- 일제 강점기의 왜곡과 급격한 산업화 과정으로 인해 그 원형이 사라지고 있는 전통예술 원형 재현
전통예술 경연대회 및 공연	전통예술 경연대회 지원	- 전통문화예술을 보존, 전승하고 우수한 국악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 - 전통예술분야 전통학생 및 일반인의 기량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창작 활동 지원	국악창작곡 개발 -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 창작 활동 지원 - 수상작품은 음반과 DVD로 제작되어 국내 및 예술기관으로 보급
	창작국악실험무대 - 천차만별 콘서트	- 신진 국악단체 공연활동 기회 제공 및 창작활동 지원 - 신진 국악단체 단독 공연 무대를 제공
	전통연희 활성화 사업	- 2007년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에서 2010년 상설공연 형태로 변경 - 창작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연단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우수 창작연희 단체를 선정하여 서울·남원·부산 국악원에서 4개월24회에 걸쳐 공연
전통예술 대중화 지원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 2010년, 51회를 맞이하는 민속예술축제는 21개 시·도에서 선발된 대표 민속예술작품의 경연으로 진행
	아리랑 페스티벌 개최	- 한국의 아리랑을 세계에 소개하여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아리랑을 세계인의 노래로 만들고자 하는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
	전통예술분야 연수 단원 지원	- 국악 고음창출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 - 전통예술분야 전공자들이 전통예술 연주기관인 국립국악원에서 연주 인턴으로 근무 실용적 재교육 실시 - 국악전공졸업자를 대상으로 민간 및 국립 기관에서 업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연기획, 홍보, 강습, 연주 등 전문분야의 실무를 담당
	세계무형유산 활용 관광지원화	- 전통예술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판소리, 종묘제례악, 가곡 등의 종목을 대상으로 축제 공연 행사 등을 지원
	전통예술 고공공연 관광상품화	- 전통예술 콘텐츠를 공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한 사업 - 궁중에서 연희되었던 궁중예술의 원형을 재현하여 전통예술 콘텐츠를 개발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	- 지역공동체 축제 및 민속놀이 활성화와 한국적 축제의 원형을 기록·홍보하여 국내·외 관광객들로 활용하기 위해 10개 마을 축제를 선정하여 현장을 기록함
전통예술 세계화 사업	해외강사파견 및 악기지원	- 우리 교포 거주지역 및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해외 교육기관에 강사 및 악기를 지원 - 전통예술을 감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스 운영	- 전통예술인들의 창작 및 글로벌 역량 강화 - 개인아티스트 및 단체에게 해외 공동작업이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 - 기금 직접지원 방식항공로, 체재비 제공과 - 간접지원방식현지 국제 전문가 멘토링 제공, 네트워킹, 홍보 지원 등 병행
	전통예술 텍스트 번역 지원	- 실용성이 높은 전통예술 강습교육용 교재뿐만 아니라 학술자료, 홍보물 등 다양한 번역사업 지원
	전통예술 해외 아트마켓 및 페스티벌 진출	- 직접 지원체계항공로 지원과 간접 지원체계통합 홍보물 제작, 교육 컨설팅, 국제교류지식 정보화마련 - 해외 협력기관과의 MOU체결을 통해 직접 간접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함

또한, [표 3]과 같이 국립국악원, 국악학교·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 (재)전통공연

예술진흥재단, (재)국악방송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3. 전통예술정책관련 운영 기관[7]

구분	역사	주요 업무 내용
국립국악원	- 1951년 설립되어 한국전통 공연문화의 원형을 보존하는 동시에 이를 창조적 전승함 - 연수와 교육을 통한 국악문화향수기회 확대와 국악의 대중화 및 세계화 추진 - 지역의 전통음악을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남원1992, 진도2004, 부산2008에 국악원 개원	- 공연: 정악단·민속악단·무용단·창작악단 등 4개 전속 국악연주단 운영 - 교육: 유·초·중등교사 국악교육 직무교육, 국악동요제, 교육용 국악사전 편찬, 교육용 국악기 개발 연구, e-국악아카데미 운영 등 - 연구: 국악학 학술연구와 국악기 연구, 국악 아카이브구축 등 사업 운영
국악학교·국악고등학교	- 1994년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로 시작한 6년 과정의 문교부 직속학교 - 전통 음악을 계승·발전시켜 우리문화 창달의 주역될 창조적 인재 양성	- 다양하고 체계적인 심화 교육 진행 - 전국 시도 순회 공연, 전통음악교실, 정기연주회, 세계 각국의 청소년과의 교류 등
전통예술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	- 1966년 사립 국악예술학교로 개교, 2008년 국립학교로 전환 - 민족예술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	- 실기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 공연을 통한 봉사 정신의 함양, 국제 교류를 통한 예술의 질적 향상 및 국제 경쟁력 향상 등 다양한 교육활동 진행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2007년 (재)국악문화재단으로 출범, 2009년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으로 확대 개편	- 전통공연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정책 개발, 전통공연예술의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전통공연예술 인력 양성 관련,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탁 등 사업 담당
(재)국악방송	- 국악 FM은 2010년 3월 개국 민족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국악인구 저변확대와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다목적 기반을 조성함	- 교육, 소외계층대상, 청취자 참여, 주부교양, 공연실황, 청소년 교양 문학 프로그램 등 전통과 연계된 정규 프로그램을 제작해 하루 24시간 라디오 방송 실시

2. 전통공연예술의 산업 현황 분석

2.1. 전통공연예술분야 산업화 현황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는 공연예술시장의 구성요소를 창작부분, 유통부분, 소비부분, 지원 부분으로 나누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분류기준을 활용하여 전통공연예술분야 산업화 동향을 살펴보았다[8].

가. 창작부분

창작부분을 전통공연예술 단체 현황에서 살펴보면, 법적형태로는 임의단체 또는 개인이 432개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으며, 사단법인 형태의 단체도 111개로 비

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속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확인된 단체 중에는 민간단체에 해당되는 전통공연예술단체가 301개로 가장 많았으며, 광역자치단체는 205개, 기초자치단체는 21개, 중앙정부 소속단체는 5개 순이다. 전통공연예술단체의 지역별 수준을 살펴보면 서울이 179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104개, 전북 65개로 대체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법적형태로 분류한 전통공연예술단체 현황[1]

법적형태	임의단체 또는 개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상법인	해당사항 없음	미확인
단체수	432	111	15	10	13	58

전통국악공연 건수 및 횟수를 통해 전통공연예술 활동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국악공연은 연평균 약 3,480회로 2011년도에는 4,036회의 공연으로 증가하였다가 점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연 1건 당 공연 횟수는 2010년이 2.12회로 가장 많은 횟수를 보였으며, 2011년에는 1.85회로 잠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2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공연 건수는 감소하는데 반해 공연 1건당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악 단체 내의 창작을 위한 예산 확충에 제약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표 5. 공연 건수 및 횟수 추이[9]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연건수	1,379	1,632	2,187	2,100	1,660
공연횟수	2,684	3,456	4,036	3,984	3,241
공연 횟수/건수	1.95	2.12	1.85	1.90	1.95

전통예술(국악)은 기악·성악·연희·혼합·복합·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할 때 기악공연이 각각 432건, 550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혼합 공연(공연 건수 383건, 공연 횟수 680회)이 기악 공연의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서 복합 공연의 공연 건수는 348건으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연 횟수는 1,078회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복합공연의 공연 횟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퓨전 국악과 어린이 대상의 국악뮤지컬이나 인형극 등 다른 장르와 결합한 공연 형식과 다양한 국악체험 프로그램의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 된다. 국악 공연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장르는 성악 공연(232건)이었으며 연희(230건), 기타(27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연 1건당 공연 횟수는 복합 공연이 3.10회로 많았고 연희가 2.03회, 혼합 공연 1.78회, 기타 공연 1.37회, 성악이 1.32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와 같이 혼합과 복합 공연의 횟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예술에 대한 수요자 저변을 확대하는 주요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국악 대중화 현상의 징표로 장기공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표 6. 국악 장르별 공연건수 및 공연횟수[9]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기타	계
건수	432 (26)	232 (14)	230 (13.9)	383 (23.1)	348 (21.0)	27 (1.6)	1,660 (100)
횟수	550 (17.0)	307 (9.5)	468 (14.4)	680 (21.0)	1,078 (33.3)	37 (1.1)	3,241 (100)
횟수/건수	1.27	1.32	2.03	1.78	3.10	1.37	1.95

*()의 숫자는 %임.

전통예술의 해외공연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해외 62개국에서 총 232건의 공연이 개최되었는데, 2009년 해외 공연 실적이 26개국 72회인 것에 비하면 1년 사이에 외형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해외공연 국가별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표 7. 전통예술의 해외공연 국가별 개최비중(%)[10]

일본	미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	대만	브라질	몽골	프랑스	캐나다
12.9	12.1	7.3	4.7	3.9	3.4	3.4	3.1	3.1	2.3

62개국 중 일본이 30건으로 12.9%의 가장 높은 비중으로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뒤이어 미국이 28건으로 12.1%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나. 유통부분

유통부분은 공연장과 공연기획사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연장과 공연기획사 수, 공연장의 활동 등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산업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음반 유통업체를 살펴보면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판매량이 42,005개로 전체의 약 28.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신나라 음반사가 약 14.8%, 지구레코드 음반사가 10.5%로 나타나 전체 판매량의 절반 정도가 상위 3개 음반사 판매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수의 음반제작사의 역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전통공연예술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제작사의 다변화 및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 8. 전통공연예술 제작 현황(2010년)[10]

제작주체	제작건수(건)	비율(%)	제작주체	제작건수(건)	비율(%)
신나라	25	16.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3	2
로엔 엔터테인먼트	19	12.7	국악방송	3	2
악당이반	15	10	PONYCANYON KOREA	2	1.3
Universal	9	6	국립남도국악원	2	1.3
국립국악원	6	4	Mirrorball Music	2	1.3
Mnet Media	5	3.3	Liz Music	2	1.3
예술기획탑	4	2.7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	1.3
문화체육관광부	4	2.7	The Open Music	2	1.3
이삼스님	2	1.3			

[표 9]는 공연단체 항목별 수입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국악단체 수입 중 티켓판매 수입비중이 15.4%로 다른 공연예술분야에 비해 월등히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공연출연료 비중은 55.7%, 공공지원 수입비중은 81.4%로 다른 공연예술분야에 비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자료들을 비교해 볼 때 1건당 공연횟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새로운 작품 제작 측면에서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티켓판매 수입과 같은 단체의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작품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공연출연료 수입 비중이 높다는 건 다시 지출부문에서도 공연출연료

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출 부문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지원금의 비중 역시 높아지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17.2%로 타 예술분야에 비해 높은 반면에 공공지원 수입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 전통공연예술분야의 단체들은 정부의 정책변화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음을 내포하는 것이다.

표 9. 공연단체 항목별 수입내역[11]

단위 : %

구분	자체수입			공공지원수입	기부금수입	기타수입	재정자립도
	티켓판매	공연출연료	작품판매				
국악	15.4	55.7	13.0	81.4	0.9	0.3	17.2
무용	50.5	20.9	8.9	67.3	2.2	0.3	24.3
양악	23.5	49.3	6.3	76.0	1.8	0.7	20.4
연극	65.4	13.0	17.9	14.9	0.6	1.0	87.4
복합	28.7	37.7	10.4	15.5	1.8	0.7	-

다. 소비부분

소비부분은 공연관객에 대한 정보 및 대중성을 의미하며 관객수 및 관람률, 관객의 경제적 속성 등을 통해 현황을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전통공연예술분야의 연간 관람률을 살펴보면, 2014년 전통공연예술 관람비중은 5.7%로 무용보다는 약2배정도 높지만 영화에 비해 1/13밖에 안된다. 전통예술공연은 2010년 5.7%와 비교했을 때 거의 같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들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0.8%p가 감소하였다. 전통예술공연에 대한 대중성이 다른 예술분야에 비해 약해지고 있음 보여주고 있다.

표 10. 전통공연예술 관람률[12]

예술행사	2010년	2012년	2014년
문학행사	3.8	6.1	6.2
미술전시회	9.5	10.2	10.6
서양음악	4.8	4.8	4.9
전통예술공연	5.7	6.5	5.7
연극	11.2	11.8	12.6
무용	1.4	2.0	2.4
영화	60.3	64.4	65.8
대중가요콘서트/연예	7.6	13.5	14.4

라. 지원부분

지원부분은 공연창작자, 공연유통자, 관객에 대한 재정지원을 의미하며 공공 및 민간부문의 직·간접적 재정지원의 지원건수 및 지급금액 등을 통해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기금에서 전통예술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전통공연예술분야 정부지원금 비중이 21.6%로 약 91억원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연극장르 33.3%(약 141억원)에 이어 2순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기금 중 전통공연예술분야의 지원수준을 살펴보면 전통공연예술분야가 16.8%(약 45억원)으로 타 분야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통공연예술분야는 주로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전통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적 차원의 지원확대와 전통공연예술 향유 및 타 분야와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공연예술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시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며 공적 단체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11. 전통공연예술 지원현황[10]

구 분	전체	중앙정부기금	지역기금
지원금액(천원)	13,769,079	9,186,453	4,582,626
비중(%)	19.7	21.6	16.8

기업의 전통공연예술분야 지원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3년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수준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인프라지원 972억원, 서양음악 지원 206억원, 문화예술교육 사업 199억원 등의 순으로 분야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전통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지원규모는 26억원 수준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전통공연예술 분야의 기업지원 규모가 2008년에 약 15억원 수준에서 2010년 30억원 수준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타 분야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업의 마케팅 전략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기업의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의 취지가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이윤창출에 이

기 때문에 독특한 전통예술을 통해 보다 다양하며 창조적인 소비계층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기업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2. 주요 문화예술 분야별 기업지원 현황[13]

단위 : 백만원

분야별지원금	2006년	2008년	2010년	2013년
서양음악	29,172	22,439	22,022	20,651
연극	5,644	2,113	3,669	3,748
뮤지컬	-	3,958	4,611	4,401
국악	1,595	1,832	1,645	5,271
인프라	45,316	35,146	39,895	97,249
전통예술	3,728	1,522	3,036	2,649
문화예술교육	11,633	37,587	34,634	19,890
총 계	184,018	165,985	173,501	175,323
지원건수	3,182	2,389	1,940	1,832

IV.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정책 및 산업 현황에 대한 주요 시사점 도출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주요 시사점

앞서 살펴본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정책적·산업화적 동향분석을 통해 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4가지 주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전통공연예술 산업에 관한 공공정책 재수립이며, 둘째, 전통공연예술분야의 저변확대 및 대중화 필요. 셋째,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넷째,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1.1 전통공연예술 지원정책의 재정립 및 개발

앞서 전통공연예술 정책 동향분석을 통해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개선방향을 수립할 수 있다. 전통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전통공연예술의 비전을 설정할 수 있는 전통공연예술 기본 정책을 근간으로 전통공연예술의 대중화·국제화 등 산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립 및 콘텐츠 개발, 전통공연예술

의 다양성 및 독창성을 계승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지원 사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1.2 전통공연예술분야의 저변확대 및 대중화 필요

전통공연예술이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저변확대와 대중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K-pop, 드라마 등 대중문화는 글로벌적으로 매우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게임 및 영화, 방송미디어가 성공적으로 글로벌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류 그룹 및 메이저급 콘텐츠 등의 성공요인을 통해 우리 전통공연예술산업의 저변확대 및 대중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어느 때보다도 가장 적합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1.3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자생력 강화는 동 산업이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일 것이다.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연기획·제작과 유통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촉진 및 연관 시장의 성장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공연기획·제작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 제작과 전문 인력양성, 제작 공간 지원 및 기반 시설 조성과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즉,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지원 전략수립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1.4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해외진출은 향후 문화예술분야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으며, 장기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분야로 볼 수 있다. 특히 실패없는 해외진출과 성공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이 전통공연예술산업육성 초기 단계에서부터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아트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분석 및 현지화 노력, 해외 공연활성화를 위한 해외 거점 설치, 해외 수요층 만족

을 높이기 위한 언어 등 매체의 역량 강화 등은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면서 동시에 현재 우리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취약점으로 시사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2.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

위에서 제시한 주요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공연예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림 2]는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세부적인 전략방안에 대해서는 아래에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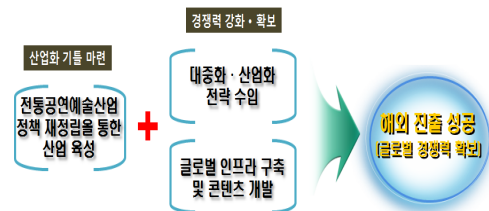


그림 2. 전통공연예술산업이 글로벌화 위한 기본 방향

2.1 전통공연예술분야 지원정책 개선 방안

전통공연예술 기본정책에 전통문화의 보존과 순수창작의 전승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기존 정책에서 미흡한 부분인 전통공연예술교육과 향유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은 사회문화적 변화에 적응하려는 문화적 원심력과 수구적으로 전통을 보존하려는 구심력에 의해 균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전통 단절의 위기에 처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 속에서 전통문화예술의 독창성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시대에 문화예술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전통공연예술분야의 지원정책을 궁극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시대적 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의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 전통공연예술 정책 및 산업환경 분석을 통

해 현 전통공연예술정책의 개선 방향을 크게 2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전통의 보존과 순수창작의 측면에서 전통공연예술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며, 둘째, 교육과 향유를 통해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여 향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세부적인 제안방향을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통의 보존과 순수창작의 측면에서 전통공연예술정책 기본 방향 수립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정책 지속 및 확대, 지속적인 자원 발굴 등 전통공연예술 지원사업 및 제도의 지속 및 장기화, 전통에 기반을 둔 순수 예술 창작 환경 확대 등 시장영역 확대 지원정책 마련, 전통공연예술정책의 비전 설정 필요 그리고 전통공연예술산업의 시장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과 향유를 통해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저변 확대이다. 전통공연예술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지원 확대는 물론 공연 향유중심에서 교육, 체험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전통 문화 차원에서 폭넓고 다양한 교육 기반 마련되고 전통공연예술의 교육적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할 수 있다.

2.2 전통공연예술의 대중화·산업화 정책 강화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결과제로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대중화 및 산업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전략마련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대중화란 전통공연예술 소비 대중의 현재 욕구 및 취향을 겨냥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들 수 있으며, 산업화란 전통공연예술이 하나의 산업으로 구조와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경제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익구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대중화 및 산업화를 위해서는 수요층의 취향, 욕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통해 현재 현대예술계에서 전통공연예술의 위상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타 장르와의 협력 및 융합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외부효과를 통한 대중화와 기존 잠재시장 확보를 통한 산업

화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외부화를 통한 대중화 전략으로 첫째, 앞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류 선도 그룹 및 메이저 트렌드에 전통공연예술의 콘텐츠를 접목하는 방법과 둘째, 드라마, 예능 등 방송미디어와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장르에 전통적 요소를 삽입하고 노출 빈도를 확대하여 전통공연예술의 접근성을 높이고 연계 전략을 도모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기존 잠재시장 확보를 통한 대중화 전략으로는 첫째, 국내외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에 통해 다양한 언어 및 전달매체를 통한 직·간접적 홍보를 강화하고 둘째, 전통공연예술의 상업형 명품 브랜드 공연 제작. 셋째, 해외진출에 성공한 상업제품과의 콜라보 지원 등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2.3 세계화를 위한 전통문화상품 개발 등 해외진출 콘텐츠 강화

21세기의 문화경쟁력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문화 브랜드로 확립할 수 있는 것은 전통문화이다. 아시아를 넘어선 유럽, 남미지역의 한류열풍은 한국적인 독특한 감수성을 표현한 작품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러한 한류열풍이 더 이상의 트렌드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드라마나 영화 등의 대중예술에서 견인한 '한국적' 문화상품을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러한 한류열풍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한국적이고 독창적인 문화상품의 개발이 요구되면, 그 역할을 전통문화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전통공연예술에 대해 내국인에 비해 훨씬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사물놀이를 보면서 단순한 타악기 네 대로 이렇게 훌륭한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고 혼자서 3시간 이상을 노래하는 판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엄청난 소리꾼의 예술성에 경탄한다. 다만, 외국인들에게 보다 친숙한 방법으로 또한, 보다 쉬운 전달력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가 공연된다면 해외시장에서 지금보다도 더욱 열렬한 환호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장르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전통공연예술의 해외지향

적 콘텐츠 개발을 통해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타 장르와의 융합 및 재가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이 대거 등장할 수 있는 시장상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UNESCO에서 지정한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인 종묘제례악(2001년 지정), 판소리(2003년 지정), 강릉단오제(2005년 지정)에서 보듯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어야만 세계화의 문화상품이 될 수 있다.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세계문화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국가브랜드를 재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전통공연예술은 국가의 문화를 대표하는 동시에 그 자체로서 존재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의 전통예술은 역사적 산물이며 삶의 회로애락과 정서가 배어있는 결정체이다.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 서구화로 인해 우리의 전통문화는 예술적 보편성마저 상실하며 그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다행히 1980년 후반에 들어와 전통문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정부를 비롯한 전통예술계에서는 전통예술의 대중화 및 산업화를 위한 해법마련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 전통예술의 교육, 인프라, 인적자원, 공연활동에 이르기까지 양적 성장의 기반이 되었으며,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전통공연예술산업은 양적인 성장은 이루어 왔지만 대중과 함께하는 내실 있는 성공은 거두지 못하였다. 전통예술이 대중과의 접점을 찾지 못함으로써 현재까지도 대중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문화시대에 들어와 우리 전통공연예술이 더욱 고립화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원인이 되었다. 우리 전통공연예술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문화산업을 국가의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난 문화예술이 보편적이고 평범해지고

있어, 보다 독특하며 창의적인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장르로서 전통예술 장르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예술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향유되어온 생활문화로 한 나라의 고유한 정체성과 독창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전통예술장르는 국제적 관심 분야로 그 시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전통공연예술 분야의 대중화 및 산업화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시대를 살아가는 불가피한 전략요소로서 그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통공연예술의 현대적 발전방안. 특히, 글로벌 시대에 전통공연예술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공연예술의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우리 전통공연예술의 정책 및 산업 동향 분석을 토대로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통공연예술분야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전통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을 실행하고 교육적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의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전통공연예술의 대중화 정책을 실행하여 다양한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세계화를 위한 문화상품 개발을 통해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문화상품 개발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은 기존의 양적인 확산이 아닌 시대가 요구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성에 따른 것임을 재설명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1] 문화체육관광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10 전통공연예술통계조사, 2011.
- [2] 문화재단, 주요 무형문화재, 2009.
- [3] 강동원, 전통국악의 실태와 육성방안-전통국악진흥법 제정, 왜 필요한가?, 자료집, 2014.

- [4]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 비전 2010*, 2006.
- [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통공연예술의 지역 간 균형발전 전략 연구*, 2015.
- [6] 박현승, *공연예술 참여의 동기와 제약 전통공연 예술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접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7]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문화예술정책백서*, 2011.
- [8]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예술시장 조사연구*, 2004.
- [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문예연감*, 2014.
- [10] 국립국악원, *국악연감*, 2011.
- [11]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실태조사*, 2013.
- [1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2014.
- [13] 한국메세나협회, *연차보고서*, 2014.

배 기 형(Ki-Hyung Bae)

정회원



- 1984년 2월 : 세종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 석사)
- 1992년 2월 : 세종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 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세종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

<관심분야> : 문화콘텐츠산업, 응용미시, 문화경제학

저 자 소 개

임 영 순(Young-Soon Lim)

정회원



- 2014년 2월 : 숙대 실버비즈니스학과(경영학 석사)
- 2015년 3월 ~ 2016년 2월 현재 : 세종대학교 무용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문화콘텐츠산업, 전통무용, 교육

맹 해 양(Hai-Yang Meng)

정회원



- 2012년 9월 :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제통상학과 석·박사과정
- 2015년 9월 ~ 현재 : 세종대학교 경제통상학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 문화콘텐츠산업, 유통경영, 국제경쟁력